

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
2023 실�크로드 문명아카데미 제3기

제10강
5월 23일(화)
오후 7시-9시

실크로드와 오리엔탈리즘의 길



강사: **김중순** 교수

계명대학교 독문과를 졸업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비교종교학 석사 학위를, 짜르부뤼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계명대학교 명예교수로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연구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제 저널 *Acta Koreana* 와 *Acta Via Serica*의 편집장을 겸하고 있다. 샤머니즘을 비롯한 고대종교와 문명교류사를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Birdman: Pathfinder of Korean Shamanism*, 『문화의 이해와 다문화교육』, 『이슬람, 그 반역의 역사』, 『횡으로 읽는 문명 이야기: 중반구와 글로벌 르네상스』 등이 있다.

실크로드의 형성은 동서의 통상교류에서 비롯되었다. 실크로드는 처음부터 완성된 길이 아니고 만들어진 길이며, 2천 년이 넘도록 지금도 여러 갈래의 실크로드가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실크로드는 더이상 비단·향신료·담배·도자기 등을 사고팔던 통상 교류의 길로만 머물지 않는다. 과학기술·천문학·의학·문학·철학·종교·예술 등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동서 교류의 젓줄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양은 서양을, 서양은 동양을 보다 깊이 알게 되었다. 상대방을 알게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호기심과 놀라움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병존(並存)과 동화(同化)를 거쳐 융합(融合)에 이른다. 그러나 서양이 동양을 이해하는 과정은 이러한 일반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매우 독특한 현상을 보인다. 놀라움과 깨달음에서 시작되지만, 이는 병존과 동화 대신 곧 두려움과 열등감으로 변하고, 왜곡을 통해 적대화(敵化)에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한다. 서구인들에게 실크로드는 오리엔탈리즘의 길로 작동했던 것이다.